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선으로 뚫고나가자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박히 불멸의 대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주체108(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가는 역사적전환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닫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 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제시한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력사 와 자주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도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장들, 시, 군당위원장들, 중요부문과 단위, 무력기관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2. 조직문제에 대하여
3.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4.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하여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계속)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8개월간은 대단히 강도높은 투쟁과 과감한 전진의 련속이었다고 하시면서 우리당이 그 기간 항상 우리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권익,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중심에 두고 정확한 대내외정치로선을 수립하고 견지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용진하여온 우리의 전투적모정을 새로운 승리로 계속해 이어가자면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어야 하며 현정세의 추이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제들은 현실에 대한 맹렬한 판단에 기초한 적실하고 과감한 대책을 요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은 우리혁명의 거창하고도 줄기찬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할 취지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긴장된 투쟁속에서 자립, 자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우리의 주체적힘이 일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따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난국을 맞받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는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을 크게 과시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몇개월동안 우리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같으면 하라도 지행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흑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었으나 그 어떤 곤난도 공고한 전일체를 이루고 굴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돌진을 멈춰세울 수도 지체시킬수도 없었으며 국가의 힘,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추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

도 복잡한 이 사업은 과학기술적측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스스로 찾을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 모든 연구과제들은 주체적력량 즉 우리의 믿음직한 과학자, 설계가, 군수로동계급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승리로 되며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된것은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첨단국방과학의 이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것이며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끝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게 되어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된데 대하여서와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 공사가 결속되고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에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가 자랑스럽게 건설되었으며 증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은천문화휴양지건설이 우리 당의 구상대로 완공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선진문명의 창조물을 선물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린비료공장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대상건설들도 면밀히 추진되고 급속, 석탄, 건재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전국에 자력갱생경쟁을 호소한 강원도에서 당정책관철의 본보기적인 경험들을 계속 창조하고 평안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도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지방공업발전에서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것은 전체

인민이 당의 부름따라 한사람같이 떨기 해 견인불발의 증산운동, 창조운동을 과감하게 벌려온 위대한 투쟁의 필연적결과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성된 현정세의 추이를 분석하시면서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급진하면서 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것이라고 락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하시면서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수 있는 시간별이를 해보자는것일뿐이라고,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용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태태라고 못박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우치다 받아내기 위한 총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습니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며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있습니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것입니다.

미국과의 장기적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야 한다는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과의 치렬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서 서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자립, 자강의 거창한 위업을 견인하고 추동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대담하게 혁신하지 못하고 침체되어있는 국가관리사업과 경제사업 등 현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오직 혁명임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수행하려는 높은 책임감, 오늘과 래일을 다 같이 안고 정확히 개척해나가는 지혜와 용기만이 우리 위업을 성공적으로 떠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있고 전당이 사상정신적으로 통일되어있으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모든 일군들이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존재하는 난관을 자기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부족점들과 결부하여 심각히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정세하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기여하고있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몫을 엄밀히 따져보고 락심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무거운 과제를 억척같이 떠메고 완강히 돌진해나갈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성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애도 곤난도 없이 성취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합니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

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입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란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이것이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시기 나라의 경제실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친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경제부문의 대응이 기민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자력갱생한다고 구호만 웨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정비보강하는데 힘을 넣지 않고있는 폐단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세세히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고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이 없다보니 국가의 경제조직자적역할이 강화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여 장성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이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립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3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면에서 계속)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결정적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심각한 현 실태를 엄책하시고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내각은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단위들도 활성화할수 있게 경제작전을 바로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하며 당면하여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계획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을 찾고 전반적인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인민경제계획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건적문제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전원회의이후부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는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었다.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전반적인 기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 토대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산업체계, 사회주의상업을 시급히 복원하여 사회주의산업의 본태를 고수하면서도 국가의 리익과 인민들의 편리를 다같이 보장할수 있게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대책하기 위한 문제, 세계가 분조를 다루며 새 기술, 새 제품개발경쟁을 벌리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할데 대한 문제,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서 생활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

아 바로잡기 위한 문제, 국가적으로 전문건설력량을 확대강화하고 건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맡아 수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갈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있게 실시하는 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경제장성의 관건적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명시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의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었다.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공업부문들에서부터 곁쌍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부문에 산적되어있는 폐단들과 부진상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질적인 대책들을 일일이 제시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땀때기식투자, 자체의 잠재력에 의거하지 않는 하루살이식투자는 밀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경제사업에서 그 어떤 진일보도 가져올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망성있게 사업하는 것이 혁명을 책임지는 마땅한 태도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전망목표의 지표별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하여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라의 경제토대를 차곡차곡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망목표가 확정되면 국가적으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고 전인민적인 생산투쟁과 창조투쟁을 맹렬히 벌려 그것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량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농업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욱 완성하여 흉풍을 모르는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나라의 농업토지를 한선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업과 과수업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야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선이 승리하게 되며 강국의 리상과 목표도 오직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투신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기일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우리 나라를 첨단과학기술개발국, 선진문명개발국으로 전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하시면서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학들의 구성과 교육강령을 현실발전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나갈데 대한 문제, 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밀착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재능있는 인재들과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는 문제, 교원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문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품을 들여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혁명의 시대에 맞게 나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의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영상의 주요징표라고 언급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이 자기의 본태를 지키고 보

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모든 의료일군들을 무한한 인간애와 높은 의학적자질을 갖춘 로동당의 붉은 보건의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창조적노력에 의거한 거창한 애국투쟁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리고 모든 공민들이 최대한으로 중산하고 절약하여 우리의것을 더 많이 창조하고 국력 아껴줄 때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제재해도 우리의 경제는 끄떡없고 우리의 살림은 보다 윤택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이며 로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원자절약형, 부지절약형 기업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예비를 찾아내고 더 많이 중산절약하는 경쟁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진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 창조물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우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장엄한 정면돌파전을 정치적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세계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

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르고있다고 지적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증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침담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심어차레의 단독제조치들을 취하는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증명해보이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함바와 같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없이 그리고 주저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대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림없는 국방건설목표라고 하시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행위와 핵위협공같이 증대되고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4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3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 제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같은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라는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력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즐기차게 진행해나갈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성적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민음직하게 유지할것이며 우리의 역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황조정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병기들이 태어난것도 커다란 성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것이 더없이 기쁘며 이것이 우리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철두철미 자력과 주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미 시달된 단계별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더 높이, 더 빠리의 구호를 추켜들고 당의 국방건설로선을 총칙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이 제시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국방건설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핵전쟁억제력을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매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며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으로 보나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으로 보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현 국면을 타개하고 힘차게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8년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제일 많은 품을 들이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령도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매 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나아갈 방향과 투쟁목표, 과업과 방도를 정확히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능숙히 조직동원하는것이며 당의 향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건설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간부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오늘의 이 사회주의운명의 기로에서의 승과 패의 결정은 오직 우리 당의 단결된 위력과 그 향도적역활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불착한 난관들앞에서 정확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할것이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곳곳이 뻗치고 서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라승하겠다는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면서 모두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되어 승리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를 심중히 청취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조성된 현실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대비하여 우리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으로써 혁명적진군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치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정확히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인 보고를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위대한 책임감과 역척불변의 혁명신념,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나아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서면토론들이 제기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당중앙의 웅대한 작전도, 설계도를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토로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과 난관을 단호히 박차고 자력부흥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놓고 심중하고 적극적인 연구토의가 진행되는데 따라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명시되어있다.

첫째,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것이다.

셋째,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

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울것이다.

넷째,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것이다.

다섯째,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도덕기강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 들것이다.

여섯째,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것이다.

일곱째,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것이다.

여덟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조치를 취할것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전원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당중앙위원회 구조집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를 마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가 조성된 국면을 정면돌파하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상승시키는데서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 객관적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관철을 위한 전당적인 접수토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토의사업이

광범한 군중속에 접근되지 못하고 행사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회의사상을 그 집행의 직접적담당자인 당원대중에게 정확히 전달침투하여 이 과정이 곧 전 대오를 각성분발시키고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불리일으키는 사상동원과정, 작전과정, 임부분담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사상을 전달침투하는 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들과 전원회의과업관철을 위한 작전과 임부분담을 치밀하게 짜고들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모든 부분, 모든 단위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구호만 웨치면서 빈말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임무를 똑똑히 확정하며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실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자면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진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안아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역척같이 떠메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 전당, 전민, 전군을 총결기, 총매진시키는 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진행된 뜻깊은 장소에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력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따라 용진해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고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백철불굴의 공격정신을 만천하에 떨친 력사적인 대회로 조선로동당과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제힘으로 더욱 부강해질 희망찬 2020년

새해 주체 109(2020)년이 밝아 왔다.

이 땅위에 사는 인민들은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저물어간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고 보다 큰 전진과 승리가 이룩될 희망찬 새해를 신심과 락관을 안고 내다 보고있다.

지난해 2019년에 이 행성의 공기는 매우 어수선했었다.

세계도처에서 내전과 군사적 충돌은 계속 확대되었고 살길 찾아 정든 땅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의 행렬에 오른 사람들은 부지기수였다. 행성의 많은 지역, 나라들에서 생존권을 요구하여 벌어지는 인민들의 항의집회와 시위는 년중 신문지면과 TV화면들을 가득 채웠다.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위기, 민생에도 각종 자연재난까지 겹쳐져 집집마다 지에 나앉은 재해민의 수는 이루어 헤아릴수 없었다.

1

하다면 공화국의 지나온 한해는 어떠하였는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으로 그 어느때보다 시련과 난관이 많았다. 공화국인민들의 의지를 꺾고 가는 길을 막아 보려고 제재가 더욱 조여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적위협소동이 그칠새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사소한

동요도 없었고 창조와 혁신, 기쁨과 전진의 소식들이 전해졌다.

공화국의 지난 한해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이라 할수 있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는 나라의 최북단 공장과 마을에서부터 최남단의 협동전야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나뉘었고 제힘으로 락원의 새 풍경을 마련해가는 인민들의 창조의 마치소리는 온 한해 강산을 진감시켰다.

그 나날 얼마나 경이적인 성과와 기적들이 이루어졌는가.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었으며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인민들이 선호하고 애호하는 각종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져나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과학기술경쟁의 열풍속에 신발 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나라를 흥성있게 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증산을 위하여 모두가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대렬이 늘어났고 많은 다수확농장들이 배출되었다.

축산업과 파수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고기와 알, 과일생산이 늘어나고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하

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황금해의 력사가 즐거차게 이어지였다.

지난해에 삼지연시와 증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대건설이 립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되어 성대한 준공식들이 진행되었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를 한 삼지연시와 증평남새은실농장마을에서는 인민의 기쁨이 흥겨운 춤과 노래, 웃음으로 활짝 꽃피었다. 증평땅에 뿌리내린 세쌍의 청춘남녀들의 결혼식은 새집들이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지난해 국가준립의 초석이며 평화수호의 담보인 자위적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과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조선인민군 항공비행훈련 비행기회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를 비롯한 전투훈련들과 위력한 주체무기들의 시험사격들은 강대한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의 실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참으로 지난해에 공화국이 이룩한 값진 기적과 성과들은 자력갱생이야말로 번영의 보검이며 이 보검을 높이 들어쥐고나갈 때 무릇해될 일이 없고 극복 못할 난

관도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2

지난해에 이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심어 주어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해주신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것을 훌륭히 창조하도록 온 한해동안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과정만 보아도 그러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 건설현장을 찾으시고 총중으로 늘어진 외양을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개조하고 실내온천장의 내부형성을 인민들의 감정정서에 맞게 할때 대한 문제, 스키주로의 폭을 넓히고 원리투화를 관상적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있게 하며 말타기도 할수 있게 승마공원을 새롭게 꾸리는 문제 등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주보검을 높이 들어쥐고나갈 때 조화를 이룬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우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형성안만 해도 무려 2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의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제는듯 한 삼복철에도, 찬서리내리는 가을에도 건설장소를 찾고 찾으신 그이의 정력적인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새로운 온천문화, 온천문명이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되었다.

양덕의 산간벽촌만이 아닌 백두대지와 북방의 동해기슭에 펼쳐진 희한한 전변도, 나라의 전진적국력이 높이 펼쳐질수 있는 것도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없는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 주시려 정력적인 령도의 자욕을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자주신념, 자력부강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화국인민들은 자력으로 부흥하는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20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320동의 온실과 양묘장,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워야 하는 증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건설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였고 대규모의 종합적인 양덕

온천문화휴양지도 원수님의 구상을 받들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한 이 나라 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신것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공화국의 인민들이기에 그이의 구상을 실천하는 일에 모두가 떨쳐나서고 세상을 놀래우는 창조의 기적들을 련이어 이룩한것이다.

지난해 10월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절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아갈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 시련과 곤난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이라고 하시었다.

올해에도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들이 적지 않게 가로놓여있으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자력으로 자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려는 공화국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백승의 지략이 있고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으며 자력갱생의 역센 보검이 있기에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며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것으로 되

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역센 신념을 더욱 굳게 버리고 불굴의 정신력을 만장약하기 위해 추운 이 겨울에도 백두산을 찾아가고있다.

선렬들의 피어린 자욱과 체취가 력력한 항일의 옛 전장들을 돌아보며 눈비람도 맞아보고 허리는 눈길도 헤치면서 때로는 모닥불에 언 손도 녹이면서 《백두산대하》 파정을 거치고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모진 굶주림과 강추위를 이겨 절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아갈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 시련과 곤난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이라고 하시었다.

올해에도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들이 적지 않게 가로놓여있으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자력으로 자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려는 공화국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백승의 지략이 있고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으며 자력갱생의 역센 보검이 있기에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며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것으로 되

본사기자 김철진

백두의 기상을 안고

죽지 않게 했고 곡식한 기아속에 서도 굶어죽지 않게 했으며 백만개의 총검을 맞받아 조국해방의 성전으로 떠밀어준것은 그들이 지녔던 강직한 정신이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그 정신이 위대한 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백두의 정신을 안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신념이 굳세고 고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마를 타시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백두양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국해방의 성업을 이룩하였던 항일빨치산의 피어린 력사를 뜨겁게 안아보시었다.

그날에 그이의 모습은 백두의 밀림속을 누비시던 항일빨치산대장의 모습이고 백두산의 아들, 백두산형의 장군전설속의 천리마가 날아오르게 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사상 류례없는 시련도 뚫고 헤쳐나갔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백두의 정신을 안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신념이 굳세고 고

의 심중을 경건히 새겨안아보느라니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 한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고, 그래서 마음과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지지만 힘이 용솨음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산으로 향하고있으며 백두의 정신과 기상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백두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딪치는 모든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실 웅대한 작전을 펼치시었고 백두의 정신을 체질화한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있기에 승리는 변함없이 조선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이날 오늘에 이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을 꿈으로 소중히 그려보시며 힘산준평을 강의한 의지로 헤쳐나고 뚫고넘으셨을 그날의 수령님

본사기자 고성호

승리의 신심드높이 맞이한 새해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이 땅위에 희망찬 새해가 밝아 왔다.

창조와 기적의 한해를 보내고 제힘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갈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 다지는 불타는 결의가 축하장마다에 어려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한마디 축하장에 쓰는 문구이건만 한해 또 한해 밝아오는 새해가 아름다운 희망과 꿈의 대명사로 되고있는 이 땅에선 누구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백두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딪치는 모든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실 웅대한 작전을 펼치시었고 백두의 정신을 체질화한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있기에 승리는 변함없이 조선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이날 오늘에 이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을 꿈으로 소중히 그려보시며 힘산준평을 강의한 의지로 헤쳐나고 뚫고넘으셨을 그날의 수령님

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온 이 나라 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철리를 간직하고 신심드높이 맞이한 새해에서 기쁨과 랑만이 가득 넘쳐나는것이다.

어찌 이뿐이랴. 지난해 공화국은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더 높이 비약하였다.

영광의 땅 삼지연시가 현대문명이 융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되고 증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이 앞으로 련속 일떠세워 될 대규모인 새은실농장과 양묘장의 표준으로, 농장마을이 사회주의농촌문화발전건설의 본보기로 건설되었다.

또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웅장하게 건설됨으로써 사회주의문명의 신념과 의지가 높이 발휘되었다.

《바다 만풍가》의 노래높이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넘치고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속에서도 다수확운동의 불길이

새차게 일어났다.

어렵고 부족한것이 적지 않은 속에서도 공화국은 자립경제의 토대를 확대보강하여 경제를 새로운 성장단계로 이행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왔다.

자재의 힘과 기술, 자원의 힘 거한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이 있게 벌어져 온 나라 방방곡곡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끊없이 울려 퍼진 잊지 못할 지난 한해였다.

자랑찬 승리를 떨쳐온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걸어갈 밝은 앞길을 내다보며 공화국인민은 심장으로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두리에 철들같이 뭉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따라 용진해가려는 인민이 있어 새해에도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더 높이 펼쳐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더 활짝 꽃피어나리라

본사기자 김철

희망찬 새해 주체 109 (2020) 년을 맞으며 설맞이축하공연 진행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며 더 밝고 창창할 래일을 확신하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설맞이축하공연이 2019년 12월 31일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색있는 조명과 화려한 무대장치로 황홀경을 이룬 김일성광장은 설맞이축하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광장 주변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어 있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아자로운 어버이》, 남성독창 《그리움》, 혼성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혼성 2중창 《우리의 래일이 말해 줄거야》, 혼성2중창과 합창 《우리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 혼성중창 《황금산타령》 등과 아동노래연곡, 영화음악편곡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에 출연한 민수대에 술단, 국립민족예술단을 비롯한 관공예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시안의 예술교육부 문 교원, 학생소년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예술적형상으로 송년 밤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뜨거운

혈연의 정을 맺고 원수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사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남성독창 《인정의 세계》, 녀성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 등은 광장을 짝 메운 군중을 한없는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혼성6중창 《청춘송가》, 민요연곡 《정말 좋은 세상이야》, 《모란불》, 《바다만풍가》, 아동노래연곡 《제일 좋은 내 나라》, 《제일 기쁜 날》 등의 경쾌한 선율에 맞추어 군중들이 저저마다 손뼉을 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흥겨운 춤판을 펼치는 축하공연분위기는 고조를 이루었다.

송년의 마지막밤을 뜻깊게 경축하며 로동당세월과 더불어 보다 큰 행복, 더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인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새해 2020년의 시작을 알리는 경축의 축포탄들이 일제히 터져올랐다.

크고작은 원을 하늘가에 수놓으며 연방 터지는 불보라들, 꽃다발형의 축포들이 누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화광이 춤추는 광장상공에 무인기들이 날아올라 경축의 글발을 새기었다.

갓가지 색조명이 비쳐드는 무대에 환희로운 음악세계

가 또다시 펼쳐져 신년을 맞이한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며 명절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세계가 경탄하는 자력자강의 대사시적화폭으로 2019년을 빛나게 장식한 공화국의 용용한 기상을 보여주는 남성중창 《조선의 모습》,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가 무대에 펼쳐지자 온 광장은 걱정과 환희로 설레이었다.

드넓은 광장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쁨은 동지》, 《사회주의진진가》,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등의 노래는 군중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력자강기치를 더 높이 들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향해 역세게 나아가갈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 주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출연자들이 부르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중들의 우렁찬 함창으로 이어졌다.

혼성중창 《설눈아 내려라》로 끝난 설맞이축하공연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본사기자



평양얼음조각축전-2020 개막

평양얼음조각축전-2020이 지난해 12월 31일 김일성광장에서 개막되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열린 이번 축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신성, 조선인민군창작사, 만경대구역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와 청소년학생들이 창작한 70여점의 얼음조각이 출품되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축전장중심에 얼음조각으로 형성된 만경대교향집과

백두산밀영교향집앞에서 참관자들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체조선의 천만년미래와 인민의 행복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얼음조각 《백두의 혁명전통》, 《가자, (백두산대학)으로》, 《백마》 등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한길로 역세게 전진해나갈 공

화국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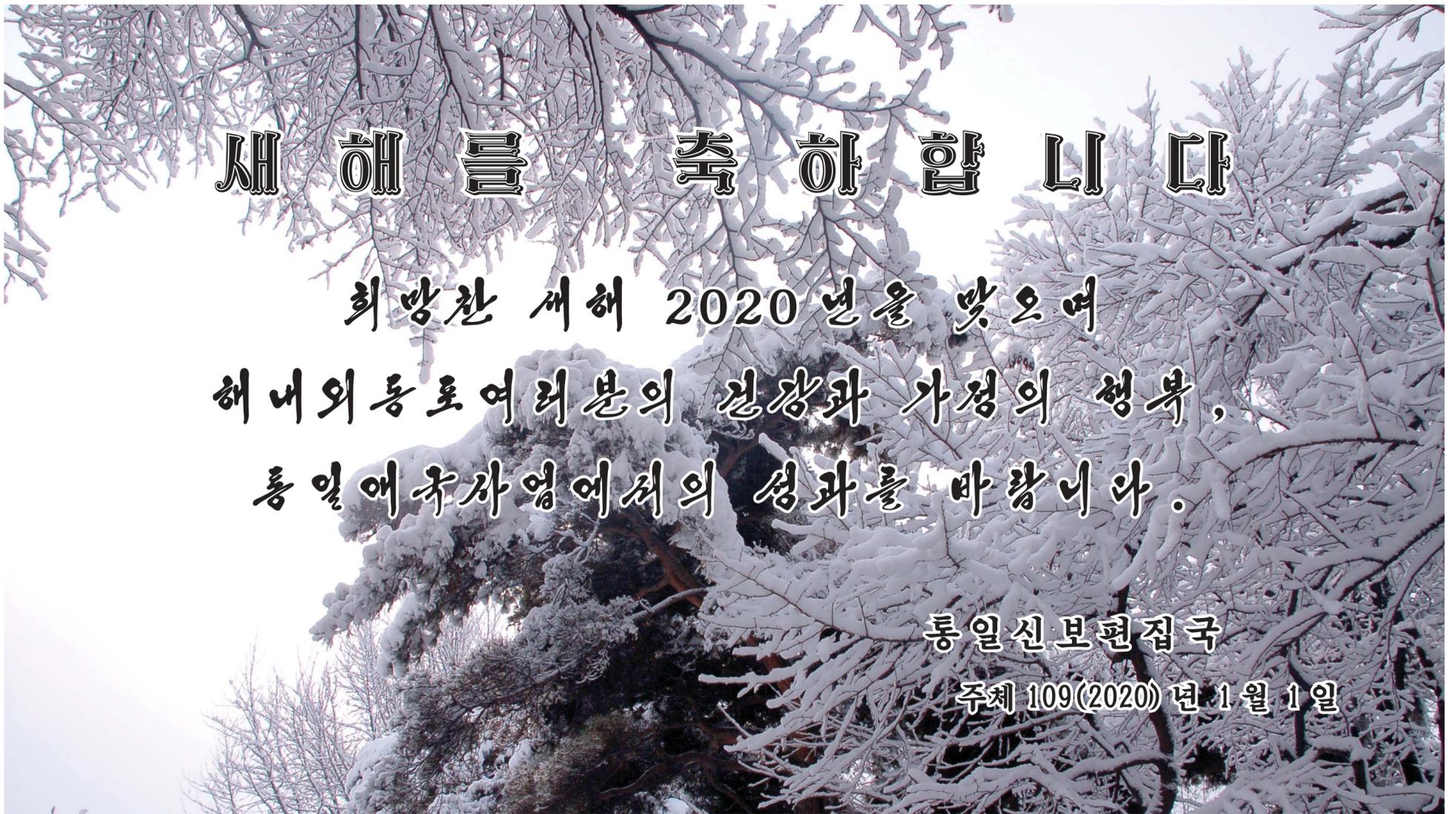
삼지연시와 양덕, 증평땅의 새 전변을 형성한 얼음조각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시려는 용지를 안으시고 불철주야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올랐음을 다시

금 절감하였다.

공화국의 국가상징인 소나무, 참매, 풍산개, 목란꽃 등을 형상한 얼음조각들도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대동강반의 화려한 불장식과 형형색색의 얼음조각들이 조화를 이루며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은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뜻깊은 추억과 희망찬 래일에 대한 락관을 안겨주었다.

본사기자



새 해 를 축 하 합 니 다

희망찬 새해 2020년을 맞으며
 해내외동로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통일애국사업에서의 성과를 바랍니다.

통일신보편집국

주체 109(2020)년 1월 1일